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

김 경 옥<sup>1)</sup> · 유 명 숙<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신체적, 정서·심리적, 사회적, 영적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1].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환자 75,000명 중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2.7%에 불과해 대부분의 환자가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여 본질적 목적인 총체적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 국립암센터의 대국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5년 7월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실시되고 일반 국민들의 58.5%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사가 있으며,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8%가 긍정으로 평가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3]. 더욱이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질환도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으로 확대됨으로써[4]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다학제적 팀으로 접근하며, 호스피스

팀 구성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면서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다[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고통과 죽음의 과정에 동참함으로써[6]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어[7] 자원봉사 활동이 단순히 희생적인 활동이 아닌 봉사자 자신의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자와 보호자 혹은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냉대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죽음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감정이나 소진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의 주관적인 생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어 실존적 공허를 체험하게 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서비스 질 저하와 봉사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6]. 그러므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실존적 공허 상태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수준과 만족도를 끌어올려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정서를 조절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감성지능과[9], 소진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인 소진 탄력성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10].

개인에게 있어 생의 의미는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해 가는 것을 의미하며[11],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로서 한 인간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개념이다[6,12]. 특히 임종

주요어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생의 의미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경옥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호사(<https://orcid.org/0000-0003-2116-949X>)

2)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sryoo7@cu.ac.kr](mailto:sryoo7@cu.ac.kr))(<https://orcid.org/0000-0002-5879-1701>)

투고일: 2018년 4월 3일 수정일: 2018년 4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17일

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들의 내적 성장과 생의 의미 발견을 도와주어야 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13].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게 생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평가가 요구된다[14]. 따라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다학제간 팀의 주요 구성원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간적인 성숙과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 등 내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한 생의 의미 증진을 위하여[15] 우선적으로 생의 의미 관련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조절 및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16], 좌절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고 개인을 동기화 시키며, 통제와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지니게 한다[17]. 특히 감성지능은 암환자들의 삶의 만족 및 목적과 관계가 있으며[18], 다학제간 팀워크가 중요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팀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직무몰입과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19]. 특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이 높으면 불쾌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감정적인 노출을 피하고 대상자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함으로써[9]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생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20].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 자원봉사자 수는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호스피스 관련 기관 및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수년째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1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역할의 모호함, 의사소통의 문제, 팀원 간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소진 정도가 높아져서 봉사활동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9]. 소진탄력성이란 소진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소진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봉사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봉사업무를 지속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소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소진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소진탄력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호스피스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진탄력성과 활동만족도[22],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8], 직무 스트레스와 감성지능[9], 생의 의미 관련 요인[20] 등으로 실태조사 및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로서 생의 의미 관련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생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긍정적인 자아상 정립과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들의 심리적, 영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궁극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생의 의미 예측 변인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3개 광역시 및 2개 지역도시에 소재한 10개의 400명 이상 규모의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개설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6개월 이상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21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ewr 3.1 프로그램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관련 변인 14개로 하였을 때 최소 194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10명을 최종 목표 수로 선정하였다.

## 연구 도구

### ●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타인과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파악하고, 인지하여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내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16]가 리더와 조직 구성원을 위해 개발하고(Wong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Choi [23]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개발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감성 이해(4문항), 타인감성 이해(4문항), 감성 조절(4문항), 감성 활용(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Choi [23]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하위 영역별 Cronbach's  $\alpha$ 는 자기감성 이해 .75, 타인감성 이해 .79, 감성조절 .82, 감성활용 .75였다.

### ● 소진탄력성

소진탄력성이란 소진 위험에 노출을 예방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업무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경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는 Choi [21]가 개발한 의료사회복지사 소진탄력성 척도를 Choi [22]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개발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적 역량(10문항), 성취와 보람(5문항),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4문항), 좋은 팀워크(4문항), 구조적 뒷받침(4문항), 개인적 자원(4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 [22]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하위 영역별 Cronbach's  $\alpha$ 는 전문적 역량 .87, 성취와 보람 .70,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 .75, 좋은 팀워크 .70, 구조적 뒷받침 .59, 개인적 자원 .72이었다.

### ● 생의 의미

생의 의미란 자신이 속한 현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믿고[23],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10]. 본 연구에서는 Choi 등[12]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의 의미 도구를 개발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9문항), 창조적 가치실현(15문항), 경험적 가치실현(10문항),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12문항)으로 총 4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 등[1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5였다. 하위 영역별 Cronbach's  $\alpha$ 는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83, 창조적 가치실현 .92, 경험적 가치실현 .82,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 .84였다.

##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자가 각 해당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구하였다. 호스피스 담당 실무자의 허락을 받은 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절차, 정보의 비밀 유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에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총 15-20분 정도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충분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회수율 95.2%)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생의 의미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2016-0006)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았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소요 시간, 정보의 비밀유지, 참여의 자발성,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과 문제점,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는 점, 동의 철회 시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3개 광역시와 2개 지역도시에 위치한 400명 이상 규모의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개설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6개월 이상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210명을 편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며, 해석하는 데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172명(86.0%)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59.2±7.6세이였으며, 50대가 82명(41.0%), 60대가 88명(44.0%)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천주교가 127명(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87명(43.5%), 고졸이 84명(42.0%)으로 많았다. 배우자는 ‘있다’가 165명(82.5%), 직업은 ‘없다’가 145명(72.5%), 월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75명(37.5%)이 가장 많았다. 봉사활동 기간은 5년 이상이 105명(52.5%), 주별 봉사활동 시간은 2~3시간이 104명(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가 74명(37.0%), 종교적 소신이 71명(35.5%)으로 많았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좋다’가 138명(69.0%)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종교, 학력, 주별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참여 동기,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의 의미 정도는 종교에서는 천주교, 불교, 기타 및 없음에 비해 개신교 신자가 높았고( $F=7.01, p<.001$ ),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이 생의 의미 정도가 높았다( $F=4.48, p=.012$ ). 또한 주별 봉사활동 시간에서는 2시간 미만과 2~3시간에 비해 4시간 이상이 생의 의미 정도가 높았고( $F=7.39, p<.001$ ), 봉사활동 참여 동기에서는 기타에 비해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함이 생의 의미 정도가 높았다( $F=4.63, p<.005$ ). 지각된 건강상태에서는 ‘그저 그렇다’에 비해 ‘좋다’가 생의 의미 정도가 높았다( $t=3.35, p<.001$ )(Table 1).

### 대상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92±0.80 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자기감성 이해 5.23±0.81 점, 감성활용 4.84±0.98 점, 타인감성 이해 4.84±0.93 점, 감성조절 4.77±0.99 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소진탄력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3±0.41 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개인적 자원 3.95±0.51 점,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 3.86±0.52 점, 좋은 팀워크 3.77±0.47 점, 전문적 역량 3.67±0.46 점, 구조적 뒷받침 3.57±0.46 점, 성취와 보람 3.53±0.50 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생의 의미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3.07±0.31 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창조적 가치실현 3.16±0.34 점, 경험적 가치실현 3.15±0.33 점,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 3.01±0.33 점,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2.98±0.42 점 순이었다(Table 2).

### 대상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

대상자의 생의 의미는 감성지능( $r=.54, p<.001$ ), 소진탄력성( $r=.65, p<.001$ )과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소진탄력성( $r=.69, p<.001$ )과 높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 대상자의 생의 의미 예측 변인

대상자의 생의 의미를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종교, 학력, 주간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참여 동기, 지각된 건강 상태, 그리고 대상자의 생의 의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감성지능과 소진탄력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 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470~.910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99~2.125로 10 이상을 넘지 않았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5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209~2.922로 2에 가까이 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 확인과 모형의 적합성도 만족하였다( $F=19.27, p<.001$ ).

대상자의 생의 의미를 예측하는 변인은 소진탄력성( $\beta=.47$ ), 감성지능( $\beta=.15$ ), 개신교( $\beta=.12$ ), 불교( $\beta=-.15$ ), 전문대 이상의 학력( $\beta=.11$ ), 이웃을 돕기 위한 동기( $\beta=.16$ )로 나타났으며, 이

<Table 1> The Differences of Meaning in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Sheffé
Gender	Male	28 (14.0)	3.06±0.29	-.26 (.798)	
	Female	172 (86.0)	3.08±0.31		
Age (yrs)	≤49	15 ( 7.5)	3.01±0.34	1.85 (.139)	
	50~59	82 (41.0)	3.13±0.30		
	60~69	88 (44.0)	3.05±0.30		
	≥70	15 ( 7.5)	2.98±0.31		
Religion	Protestant <sup>a</sup>	29 (14.5)	3.25±0.32	7.01 ( $<.001$ )	a>b,c,d
	Catholic <sup>b</sup>	127 (63.5)	3.07±0.28		
	Buddhism <sup>c</sup>	31 (15.5)	3.01±0.32		
	Other and None <sup>d</sup>	13 ( 6.5)	2.84±0.26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sup>a</sup>	29 (14.5)	2.95±0.25	4.48 (.012)	a < c
	High school <sup>b</sup>	84 (42.0)	3.05±0.30		
	College <sup>c</sup>	87 (43.5)	3.13±0.31		
Spouse	Yes	165 (82.5)	3.08±0.30	.64 (.521)	
	No	35 (17.5)	3.04±0.32		
Occupation	Have	55 (27.5)	3.13±0.28	1.54 (.126)	
	Have not	145 (72.5)	3.05±0.31		
Monthly income (10,000won)	<100	75 (37.5)	3.02±0.29	2.46 (.064)	
	100~<200	50 (25.0)	3.06±0.33		
	200~<300	49 (24.5)	3.08±0.31		
	≥300	26 (13.0)	3.21±0.27		
Duration for volunteer activity (yrs)	<1	16 ( 8.0)	3.06±0.33	.07 (.975)	
	1~<3	34 (17.0)	3.05±0.34		
	3~<5	45 (22.5)	3.07±0.29		
Hours for volunteer activity per week (hrs)	≥5	105 (52.5)	3.08±0.30	7.39 (.001)	a,b < c
	<2 <sup>a</sup>	18 ( 9.0)	2.91±0.19		
	2~3 <sup>b</sup>	104 (52.0)	3.03±0.31		
	≥4 <sup>c</sup>	78 (39.0)	3.16±0.30		
Motivation of hospice volunteer activity	Service for neighborhood <sup>a</sup>	74 (37.0)	3.14±0.31	4.63 (.005)	a>d
	Religious belief <sup>b</sup>	71 (35.5)	3.09±0.29		
	For new experiences <sup>c</sup>	25 (12.5)	2.96±0.22		
	Etc <sup>d</sup>	25 (12.5)	2.93±0.37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38 (69.0)	3.12±0.31	3.35 (.001)	
	So so	62 (31.0)	2.97±0.28		

들 변수는 생의 의미를 50.2%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생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긍정적인 자아상 발견과 주관적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고, 그들의 정신적, 영적건강 증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의 의미 정도는 평균 평점 3.07±0.31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연구도구로 측정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3.08점[20]과 간호대학생의 3.02점[13]과

유사한 수준이며, 40대에서 70대 성인의 2.92점[14], 임상 간호사의 2.96점[2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생의 의미의 4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창조적 가치 실현이 가장 높았고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Seo [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생의 의미의 하위 영역 중에서 창조적 가치실현은 일반적으로 삶의 목표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창조적 가치실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잘 유지하면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보는 가운데 자원봉사자 자신 또한 인간 존재와 생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호스피스 자원봉

<Table 2> The Degree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to Burnout, Meaning in Life (N=200)

Variables	M±SD	Min.	Max.	Possible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4.92±0.80	2.75	6.50	1~7
Self emotion appraisal	5.23±0.81	3.25	6.75	
Other's emotion appraisal	4.84±0.93	2.00	6.75	
Regulation of emotion	4.77±0.99	2.00	6.75	
Use of emotion	4.84±0.98	2.25	6.75	
Resilience to Burnout	3.73±0.41	2.69	4.88	1~5
Professional competency	3.67±0.46	2.50	5.00	
Accomplishment and worthiness	3.53±0.50	2.20	5.00	
Firm belief and value about their profession	3.86±0.52	2.25	5.00	
Good teamwork	3.77±0.47	2.75	5.00	
Support by their agency	3.57±0.46	2.25	4.75	
Individual resources	3.95±0.51	2.50	5.00	
Meaning in Life	3.07±0.31	2.28	3.82	1~4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elf and life	2.98±0.42	1.75	4.00	
Creative value realization	3.16±0.34	2.33	4.00	
Experimental value realization	3.15±0.33	2.40	4.00	
Contentedness of past and present	3.01±0.33	2.08	3.83	

<Table 4> Predictors of Meaning in Life (N=200)

Predictors	B	SE	β	t	p
Religion* d3	.10	.05	.12	2.21	.028
Religion* d1	-.19	.07	-.15	-2.60	.010
Educational level ^ d2	.05	.02	.11	2.06	.040
Motivation † d3	.10	.04	.16	2.80	.006
Emotional Intelligence	.06	.03	.15	2.06	.041
Resilience to Burnout	.35	.05	.47	6.39	<.001
Adj R <sup>2</sup> =.502    F=19.27    p<.001					

\* Dummy variables(Other and Non=0, Buddhism=d1, Catholic=d2, Protestant=d3)

^ Dummy variable(Middle school=0, High school=d1, College=d2)

† Dummy variable(Etc=0, For new experiences=d1, Religious belief=d2, Service for neighborhood=d3)

<Table 3>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to Burnout, Meaning in Life (N=200)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ρ)	Resilience to Burnout r(ρ)	Meaning in Life r(ρ)
Emotional Intelligence	1		
Resilience to Burnout	.69 (<.001)	1	
Meaning of Life	.54 (<.001)	.65 (<.001)	1

사자라는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에 반해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이 낮은 이유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심리적 조건과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지만, 주위의 환경에 부딪치는 위기의식과 환경 속에 자신을 개입시키

지 못하여 무기력해진 자신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6]. 본 연구대상자의 과반수가 60세 이상으로 이 시기의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의 약화, 사회경제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본다. 경험을 통해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생의 목적의식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생의 의미를 예측하는 변인은 감성지능과 소진탄력성, 학력, 종교 및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생의 의미를 50.2% 설명하였다. 이들 변인 중 소진탄력성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사회, 심리적 요소인 소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생의 의미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6]. 호

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업무 수행 시 자신감이 없어질 경우에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경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소진탄력성이다[22]. 또한 소진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과 건강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2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소진탄력성이 높을수록 활동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22]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호스피스자원 봉사자를 위한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중재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학적 변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감성지능으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능이 생의 의미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Yoo [20]와 Teques 등[18]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감성지능은 타인과 자신의 감성을 조절하고 이해하며 감성을 활용함으로써 다학제적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 과정 중에 의료진을 비롯한 팀원 간, 혹은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를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소진을 예방하고[19]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개인의 동기부여, 봉사의 지속성 및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지능을[29] 강화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생의 의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력, 종교(개신교, 불교), 이웃을 돕기 위한 동기로 나타났다. 먼저 학력에 대해 살펴보면, 높은 학력일수록 생의 의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생의 의미에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된 바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고학력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선행연구[30]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과거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며, 학습과정에서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의 의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종교인데 대상자의 종교가 개신교일 경우 불교, 가톨릭, 기타 및 종교 없음에 비해 생의 의미 정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종교에서 우러나온 신앙심의 영향이며, 성숙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종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실존적인 공허를 극복하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해 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1,15]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종교의 유형보다는 개인의 영적인 성숙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형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한 영적 성숙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이웃을 돕기 위한 동기로 나타났으며, 이웃을 돕기 위한 동기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은 진정한 인간애로서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행위이다[15].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가기 쉬운데 주위의 이웃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사회활동의 참여로 호스피스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러 동기에 비해 이들의 생의 의미 정도가 보다 높게 나왔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실무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진탄력성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때 학력, 종교 및 봉사활동 동기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한 결과, 소진탄력성, 감성지능, 학력, 종교 및 이웃을 돕기 위한 동기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생의 의미를 50.2%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과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사회, 심리적인 변인을 고려한 중재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인력,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팀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자 자신의 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진되고 나아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실무현장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및 소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아울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생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 탐색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 Kim YH, Lee SH, Lim HS, Choi YJ, Kim YJ, Lee SY, et al. Family caregivers' quality of life, depression and anxiety according to symptom control in hospice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2015;18(4): 314-321. <http://doi.org/10.14475/kjhpc.2015.18.4.314>
-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Seniors Over 65 years of Health Insurance Bojangryul, Expanded from 67.5% to 70.6% [Internet]. Seoul: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6 [cited 2016 May 18].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
- Kong IS. Current status of hospice/palliative system and development pla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olicy Brief*. 2015;9(6):7-19.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law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regarding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Interne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6[cited 2018 March 05]. Available from:[http://www.law.go.kr/\(14013,20160203\)](http://www.law.go.kr/(14013,20160203)).
- Yoon SJ, Choi YS, Jung JG, Kim JS, Ryu HW. Factors associated with willingness to volunteer for end-stage AIDS patients among hospice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2017;20(4):226-234. <http://doi.org/10.14475/kjhpc.2017.20.4.226>
- Seo IJ. Meaning of Life for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2011.
- Kim MS, Lee CS, Kim HC. The effects of hospice volunteer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s about hospice and the meaning of life. *Asian Oncology Nursing*. 2007; 7(2):131-139.
- Rho SH, Lim SH.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hospice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11;14(3):163-171.
- Kim YH, Kim MJ. Occupational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hospice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2015;18(2):112-119. <http://dx.doi.org/10.14475/kjhpc.2015.18.2.112>
- Kang HW, Hong KO.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eaning in life and soothing ability to their burnout. *The Journal of Children Education*. 2013;22(4): 95-110.
- Frankl VE. Man's search for meaning. Lee SH, translator. Paju: Chunga; 1984.
- Choi SO, Kim SN, Shin KI, Lee JJ.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5):931-942.
- Sim MK, Park JM. The influence of spirituality, meaning in life and hospice perception on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7):290-299. <http://doi.org/10.5762/KAIS.2017.18.7.290>
- Kang KA, Lee KS, Park GW, Kim YH, Jang MJ, Lee E. Death recognition, meaning in life and death attitude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death educ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Palliative Care*. 2010;13(3): 169-180.
- Shim SH.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hospice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16;19(1):45-60.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1.45>
- Wong C, Law K.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13(3): 243-274.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Han SY, Lee YM.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2):5493-5499.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2.5493>
- Teques AP1, Carrera GB1, Ribeiro JP2, Teques P3, Ramón GL1. The import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eaning in life in psycho-oncology. *Psycho-Oncology*. 2016 Aug;25(3): 324-331.<https://doi.org/10.1002/pon.3921>
- Goren L. Ten Strategies for Build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eventing Burnout. *Family Practice Management*. 2018; 25(1):11-14.
- Yoo MS. The influences of death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hospice volunteers' perception of life as meaningful.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16;23(1):90-99.
- Choi MM. Creating and validating scale of resilience to burnout and scale of burnout risk with mixed method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7;59(4):245-272.
- Choi SO. Resilience to burnout and work satisfaction of hospice volunteer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09;12(3):147-156.
- Choi JH. Relationship between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aster's thesis]. Suwon: Ajou University; 2010.
- Chang SO, Burbank PM. Meaning in lif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0;30(2): 259-271.
- Youn JH, Ha JY. Nurses' Awareness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4):381-388. <http://dx.doi.org/10.7739/jkafn.20.4.381>
- Choi SH. Th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healthcare accreditation, job stress and resilience to burnout of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hospitals. [master's thesis]. Jeonju: Woosuk University; 2015.
- Chong YS, Jo SA. Source of meaning of life and efforts for meaning on happiness in Korean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13;32(3):



- 507-531.
28. Park HS, Ha HH, Lee MH, Lee HJ.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4; 21(4):466-474. <http://doi.org/10.7739/jkafn.2014.21.4.466>
29. Goldman D. In: *Social intelligence: the new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New York: Bantam Books; 2006.
30. Jeon MH, Lee B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ospice volunteer's activities perceived by hospice volunteer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09;12(3): 122-131.

##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to Burnout, and Meaning in Life of Hospice Volunteers\*

Kim, Kyung Ok<sup>1)</sup> · Yoo, Myung Sook<sup>2)</sup>

1) Nurse, Daegu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enter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to burnout, and meaning in life of hospice volunte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200 hospice volunteers who were working at hospitals for six months or longer.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7 to March 31, 2016,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22.0.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to burnout and meaning in lif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hospice volunteers' meaning in life were resilience to burnout( $\beta=.47$ ), emotional intelligence( $\beta=.15$ ), educational level(college,  $\beta=.11$ ), religion(protestant,  $\beta=.12$ ; buddhism,  $\beta=-.15$ ), and motivation for neighborhood service( $\beta=.16$ ). These variables explained meaning in life up to 50.2%. Resilience to burnout was the greatest effective factor on meaning in lif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a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improve hospice volunte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to burnout. Also, educational level, religion, and service motivation of hospice volunteers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Hospices, Volunteer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Value of Life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Myung Sook  
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33, Duryugongwon-ro 17-gil, Nam-gu, 42472, Republic of Korea  
Tel: 82-53-650-4450 Fax: 82-53-650-4392 E-mail: sryoo7@cu.ac.kr